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 2023.12.11.(월)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font-weight: bold;">보 도 자 료</div> <h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담당: 인재위원회 연락처: (02)784-6271 </div>
---	---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더불어민주당 첫 인재영입 발표 “기후가 경제”, 기후·에너지·경제를 잇는 전문가이자 청소년 기후소송 등에 헌신해 온 지구지킴이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2월 11일(월)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국회 본관 206호)에서 기후생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 15의 前 공동대표이자 현직 변호사인 박지혜 씨(44세)를 첫 영입인재로 발표한다.

박지혜 변호사는 각계 각층의 추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국민추천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추천됐으며 인재위원회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기후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인재가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인재로 발탁된 것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장점 집 딸로 태어난 박지혜 변호사는 어려서부터 학업에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경영학 학사,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기업에서 사회책임경영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아왔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근무했다.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환경법 공부를 이어나가 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

박지혜 변호사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로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였고 기후생크탱크 사단법인 플랜 15을 설립하여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그간 기후행동 분야에 기여해 온 전문가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기 위한 삼척석탄발전소 취소 소송 변호사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맡아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미래세대의 절실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도 이어왔다.

또한 플랜 15 창립멤버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물론 태양광·풍력산업의 성장과 보급 확대를 위한 활발한 정책 제안 활동을 해왔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라는 신념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경제·산업 발전 정책을 주장해왔다. RE100을 비롯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며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끌어갈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기후위기와 인권 분과 전문위원, 서울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경법 강의를 진행하는 등 기후환경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박지혜 변호사는 정치를 결심하게 된 이유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기후정치의 장을 열어나가고 싶은 점을 꼽았다. 박지혜 변호사는 “기후위기 대응은 지구를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RE100 등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의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는 뒷전이고 원전 확대에만 골몰하여, 태양광·풍력 산업이 축소되고 산업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현 사태를 바로잡고 미래세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현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붙임 1> 박지혜 프로필

<붙임 2> 박지혜 인재 소개

1 박지혜 프로필

□ 일반사항

- 1978년 경기 연천 출생(44세)
-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1997)
-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경영학(97학번)
-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수료(2003)
- 스웨덴 룬드대 환경 경영·정책 대학원 석사 졸업(2004)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2017)
- 서울대 법과대학 환경법전공 박사 졸업(2021)



□ 주요 경력

- 에코프론티어 서스테이너빌리티 사업부 선임연구원('05~'07)
- SK텔레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매니저('07~'14)
-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17~'18)
- 기후솔루션 이사('18~'22)
- 플랜1.5 공동대표·이사('22~'23.11)

□ 저서

-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경인문화사, 2022)

2 박지혜 인재 소개

연천 '지혜네' 양장점의 첫째딸, '지혜'

박지혜는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 연천군 전곡읍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전국 읍내서 제 이름을 딴 '지혜네' 양장점을 운영하셨습니다. 비록 접경지역 작은 동네지만, 학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딸이 아버지는 자랑스러우셨다고 합니다. 큰 보따리를 지고 시장골목을 누비면서도 자식 자랑에 어깨를 펴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또래보다도 일찍 철이 든 딸이었습니

어린 과학도, 제인 구달을 만나다

어려서부터 수학·과학 과목에 흥미와 적성을 느끼면서 자연스레 과학자를 꿈꾸었습니다. 남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가르침으로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멀어 주말이면 기숙사에 남아 도서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한 것이 세상을 향한 관심을 넓힌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여성 과학도로서, 세계적인 동물행동학자 제인 구달의 전기는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여성은 대학 교육을 받기도 어려웠던 시대에, 제대로 된 학위 없이도 동물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으로 아프리카로 건너갔고, 불굴의 의지로 결국 위대한 업적을 일구어냈다는 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제인 구달의 뜨거운 의지와 끈기, 자연과 환경에 대한 깊은 사랑을 삶의 모델로 삼아 왔습니다.

공대생, 엔지니어 대신 환경전문가의 길을 택하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조선해양공학과에 다니면서도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진로를 고민하였습니다. 전공했던 학과에서도 썩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장을 받았지만, 조선 엔지니어를 진로로 결심하기엔 마음 한 켠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원래 원했던 분야인 환경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환경대학원으로 진학했습니다. 국내에서 석사를 마친 후에는 더욱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자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럽의 최신 환경규제와 환경경영 사례를 연구하고, 당시에는 국내에서 생소했던, 기업의 '사회 책임경영'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기르게 된 계기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문가로 활동하다

유학에서 돌아와 처음 구한 직장은 에코프론티어라는 환경 컨설팅사였습니다.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경영·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컨설팅 업무를 하던 중, SK텔레콤의 영입 제의를

받고 약 7년간 CSR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대기업의 CSR 담당자로서 해외 글로벌 기업과 소통하면서, 글로벌 기업에서는 변호사가 사회적 임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기업 외부에서 기업에 사회책임경영을 촉구하는 공익활동에서도 더 전문성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돌도 안 된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던 위경망이었지만, 박지혜를 믿고 지지해 주는 짝의 힘을 빌어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석탄화력과 싸우며, 미래세대의 곁에 서는 변호사가 되다

박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반올림, 민변 등 공익단체에서 실무수습을 거쳤습니다. 변호사로서 소송을 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환경법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고민하고자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법 박사과정도 시작했습니다. 박사과정 도중에 비영리 법률단체인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로 채용되어 일과 학업, 육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첫 달 받은 100만원 남짓의 월급은 대기업에서 받던 급여엔 한참 못 미쳤지만, 가슴 뛰며 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로서 맡은 가장 의미있는 사건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활동을 꼽습니다. 대한민국과 미래세대에게 짐이 될 것이 뻔한 이 발전소의 인허가와 투자, 공사를 막기 위해 수많은 서한을 보내고, 법정에 섰으며, 기자회견을 하고, 거리에까지 나섰습니다. 박지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기후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소는 완공 단계지만, 반대 운동 과정에서 석탄발전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은 소중한 성과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19명의 청소년을 대리하여 아시아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청소년기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21대 총선 전 제기됐지만 현재가 3년 반이 넘게 끌고 있는 사이,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이미 투표권을 가진 성인이 되어 탈석탄 운동의 든든한 아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후 쉥크탱크를 설립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고민하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는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감축목표 상향이라는 담대한 결정을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목표를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겠다는 각오로, 박지혜는 2022년 동료들과 함께 기후 쉥크탱크 ‘플랜 1.5’를 설립하였습니다.

1년 반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탄소중립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자동차온실가스배출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기후대응기금, 태양광·해상풍력 보급과 산업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정책제안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